

뉴패러다임 국제심포지움 축하의 말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뉴패러다임 국제심포지움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심포지움에서 <지속적으로 번영하는 사회를 위한 기업의 역할>을 가정친화적인 정책과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문제해결의 새로운 접근방법으로서 지속적인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물론 전업주부이건, 직장여성이건 간에 가정과 가족 문제로 다양한 제약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특히 환영해야 하는 일입니다.

개회하는 자리에서 축하하는 말을 정부, 시민사회, 그리고 기업 측을 고루 배정한 것도 이 심포지움을 기획한 주최 측의 문제를 보는 시각이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돋보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 경제의 압축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 부재, 남편 부재의 가정이 만들어졌는가 하면 가부장적인 기업경영환경이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지탱해나가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그 결과가 오늘의 심각한 화두인 저출산 문제를 초래한 한 동인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에도 선각자적인 기업의 CEO에 의해 가족친화적인 기업의 모델이 창출된 바 있어서 이의 확산운동이 일각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심포지움을 통해서 <직장과 가정의 통합> 그리고 <기업의 가정에 대한 책임>을 논의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가족친화적인 기업풍토 조성에 기여할 이정표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참여하여주신 국제적 지도자들과 이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국내의 선각자적인 지도자들에게 희망찬 세상을 고대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 기회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참가하신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것을 믿으며 축하의 말을 갈음합니다.